

# “산불진화 역량 총동원 불법소각 엄정히 조치”

## 한덕수 권한대행

“역대 최악 산불기록 갈아치워 산불 71% 입산자의 부주의 탓 대처·예방 점검, 개선책 낼 것”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각지에서 발생해 바람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진화와 대피 과정에서 18명이 사망하고 2만3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부는 헬기 128대, 군 인원 1144명, 소방인력 3135명, 진화대 1186명, 공무원 등 4652명, 주한미군 헬기 등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올 들어 지금까지 총 244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많은 수준”이라며 “지금까지 약 1만7000ha 이상의 산림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주택과 공장 등 209곳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남은 기간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불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며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겠다”고 했다.

이어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의 확산 고리를 단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산불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구호를 비롯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담화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예측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반도체·원전 경쟁력 강화 2200억 규모 펀드 만든다

## 금융위,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정책금융기관서 75.8조 자금공급 연간 공급계획의 60% 상반기 진행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200억원 추가 조성한다. 원전산업성장펀드는 1000억원 신설한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원전은 우리 경제의 유망한 수출 산업인 만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지난 2022년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범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책금융의 조기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기업·수출입은행과 신용·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이달 21일까지 총 75조8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5개 정책금융기관은 4월 말까지 예년(2023년 기준 109조3000억원)과 비

교해 13조원 늘어난 122조원 이상의 자금을 산업현장에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 연간 공급계획의 60%를 상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당초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3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됐지만,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8000억원 증액했다.

국회에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위한 예산이 반영·확정됨에 따라 올해 12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당초 정부 300억원, 산업은행 300억원, 민간자금 600억원으로 조성된 출자금은 정부 300억원, 산업은행 350(+50)억원, 기업은행은 100(+100)억원, 성장사다리2펀드에서 100(+100)억원, 민간자금 350억원으로 공공부문에서 25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우리 경제의 유망한 수출산업인 원전산업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산업 성장펀드도 신설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 “노후준비·부채관리 등 자산관리 컨설팅 필요”

## 축사

###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자산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모두 자산관리 컨설팅을 받고 노후 준비와 부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공적 영역 외에도 민간 영역이 함께 보조를 맞추길 기대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5일 메트로신문(메트로 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100세 플러스 포럼(난세의 소화제-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권 사무처장은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는 금융과 건강 행복이라



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 모두 평생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재산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부채관리를 해야한다”며 “자식에게 상속도 하고, 자신의 노후 간병

준비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공적영역 외에도 은행·보험업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의 건강까지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권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금융산업과 헬스케어 서비스가 결합해 혁신적인 서비스가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권, 특히 보험업권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이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도 신탁·보험 등 많은 분야의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①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5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근익 KRX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 ② 참석 내빈들이 티타임을 갖고 있다. ③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티타임을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 “은퇴준비·재테크, 100세 포럼서 답 찾으시길”

## 개회사

###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요즘 세상이 안팎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고, 국외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직후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관세전쟁을 빚겨갈 수 없는 만큼, 대외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집니다.

경제성장률도 1%대로 하락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론도 부상합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국내의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우리



의 희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융이 버텨준 덕에 위기 속에서도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금융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힘듭니다. 각자 은

퇴준비와 재테크를 준비해야 합니다.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물쭈물해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식, 손주에게도 좋은 가족으로 남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한 세상입니다.

각자 저출생, 고령화, 가정생산성 저하, 수축 경제의 지속 속에서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가운데 어느 쪽이 유효한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산가들의 절세 전략에서도 의미를 얻고,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공감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진 기자 asj1231@